

Daniel K. Darko 박사, 감옥서신, 1차 세션, 콜로새서 서론

© 2024 Dan Darko 및 Ted Hildebrandt

이 분은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 참여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콜로새서 서론입니다.

저는 댄 다코입니다. 저는 고든 칼리지(현재 인디애나주 업랜드에 있는 테일러 대학교)에서 성서학을 가르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 학문은 주로 논란이 되는 바울 서신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 강의에서 바울 서신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하신 방법에 대한 멋진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는 구약을 좋아하고, 구약을 가르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알아서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구원 역사에서 행하신 일을 실제로 확장하고 폭로합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저는 학생들과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패턴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를 돌보시고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께서는 배고픈 자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자선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바울에 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교리가 바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특히 저의 가톨릭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훌륭해 보인다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왜 모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바울에게서 나오는 걸까요? 글썄요, 저는 우선 이 토론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바울을 이렇게 문제가 있는 바울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배우고 성장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바울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의 왕국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에 대해 생각합니다. 바울은 사실 기독교인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강의에서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로 표현한 바리새인적 인물을 고수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뀐 그 날부터,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꽤 오랫동안 박해했고 그의 글에서 그 효과를 증명했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머지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대 세계의 많은 곳을 방문할 것입니다. 바울의 세계에 대해 알려주는 이 지도를 보면, 신약에 익숙하다면 신약에서 익숙한 몇몇 이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콜로새나 콜로새와 같은 이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에베소와 같은 이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와 같은 이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교리를 좋아한다면, 당신은 실제로 로마라는 멋진 도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코린트와 같은 도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테네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장소들을 여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구원의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발전시키고 나누면서 그는 우리가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다룰 때 흔히 발견하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다루곤 했습니다.

그룹이 형성됨에 따라 정체성, 형성, 도덕적 문제, 대인 관계 및 관계적 문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대부분 자신이 세운 교회나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신을 썼습니다. 죄수 서신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성경을 집어 들고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 바울이 우연히가 아니라 실제로 신약성경에 자신의 서신을 배열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서가 있고, 바울의 서신에 관해서는 두 가지 주요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고 싶을 것입니다. 첫째, 서신은 교회에 쓰여진 서신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 쓴 편지 다음에 개인에게 쓴 편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에 쓴 편지인지, 어떤 편지가 먼저 나오고 어떤 편지가 마지막에 나오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배열이 실제로 길이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긴 편지가 짧은 편지보다 먼저 나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서신에 관해서도 우리는 같은 패턴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이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있어서 고려되는 두 가지 영역은 첫째, 교회에 보낸 서신과 서신의 길이입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가서 바울과 그의 글, 학자들이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글쎄요, 우리는 바울에게 기인된 약 13통의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매우 익숙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옥 서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차트에서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을 여기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계 밖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분의 주의를 재빨리 끌고 싶습니다. 우리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바울 서신과 논쟁의 여지가 없는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학자들이 이 서신들이 논쟁의 여지 없이 바울이 썼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서신들을 쓴 사람, 누가 앉아서 또는 누군가와 함께 일해서 교회를 위해 이 서신을 만들어서 우리 성경의 일부가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이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고, 그것을 그렇게 다룰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바울 서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바울 서신은 21세기인 오늘, 2014년에 우리는 이 서신들 중 어느 것이 바울에게서 나왔는지에 대해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나왔을까요?

제가 학문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바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바울 서신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바울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변호하고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변호사인 척합니다. 감옥에 가면, 이 특정 시리즈에서 우리의 초점인 서신은 여기에 강조 표시된 네 개의 서신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감옥 서신이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감옥 서신에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이 편지 역시 감옥에서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어 보세요. 요즘은 학문에 집중하고 있어서, 디모데전서와 디도후서를 목회서신이라는 다른 칼럼에 넣어서 개인에게 쓴 편지와 신학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옥 서신에 대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이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에 대해 심각한 논쟁을 벌이는 동일한 학자들은 여전히 감옥 서신 중 두 개를 논쟁의 여지가 없는 란에, 두 개를 논쟁의 여지가 있는 란에 위치시킬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감옥서신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몇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주장했듯이, 바울 서신에 대해 논쟁을 벌였지만 바울이 실제로 이 서신들을 썼다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가정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같은 사람과 다른 학자들과 의견이 다른 동료들이 좋은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 제 개인적 입장, 제 개인적 편견이라고 부르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르코의 견해에 따르면, 바울은 콜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썼지만, 저는 매우 열의적이며, 그 점에 대해 저와 의견이 다른 동료들과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감옥 서신의 또 다른 측면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또한 콜로새서와 에베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편지는 종종 다루어집니다. 서점에 가서 주석을 사러 갔다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대한 주석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골로새서에 대한 주석만 찾았다면, 주석가가 서론에서 이 편지가 에베소서와 얼마나 가까운지 쓰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대한 주석을 집어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두 편지가 얼마나 비슷한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이것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콜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종종 함께 다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공통된 스타일과 신학적 틀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리적 문제를 전달하는 방식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 구조는 여러 면에서 매우 유사한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서신의 세계관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지도로 돌아가지 않겠지만, 제가 지도를 언급했을 때 기억하신다면, 실제로 콜로새서와 에베소서가 지도에서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시기에 세계관이 비슷해 보이는 것도 당연합니다. 스타일과 관련하여, 영어로는 명확하지 않은 그리스어를 영어로 읽는 경우, 청중이나 독자가 매우 잘 작업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긴 문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헨디아디스라고 부르는 것을 반복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에서 어떤 구조가 어색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두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바울 서신에서 찾을 수 없는 특정한 것들을 실제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두 글자는 공국과 권세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적 문제를 다루고,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가족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확립합니다. 그들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구원을 구체적인 용어로 특정 과거로부터의 이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 중재되고 특정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들은 매우 명확하며, 칼빈과 다른 사람들이 이

편지들 중 일부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에베소서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내용, 세계관, 소재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 귀신, 권세, 통치자, 권세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에서 찾을 수 있지만 고린도서에서 그것에 대해 말하는 방식은 거의 인지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 즉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 그리고 우리가 일을 협상하고 처리하는 방식이며, 때때로 이 언어는 정치적 권력을 언급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또한 학자들이 이 두 편지를 함께 다루는 이유를 형성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문자 그대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두 편지에서 사용되는 어휘는 여러 면에서 공유됩니다. 골로새서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최대 3분의 1이 에베소서에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성경을 펴서 직접 비교해보세요. 사용된 언어, 전달된 생각,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아이디어나 목적이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비교에 도달하면 인사를 받는 사람들조차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에 놀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학자들이 이것을 함께 다루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만큼 가깝지 않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두 글자가 언어 사용 방식, 제시 순서에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대 40%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가 사용되지만,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이유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언어적 동의는 반드시 그들이 언어를 비슷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썼다면, 비슷한 기간 내에 썼다면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꽤 당연한 일입니다. 최근에 쓴 이메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보낸 이메일을 복사하거나 전달하지 않고 같은 문제를 설명하는 친구에게 쓴 다른 이메일.

친구에게 보낸 첫 번째 이메일에서 전달했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소중히 여기는 구식 방식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는 제 손으로 쓴 편지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손으로 편지나 카드를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쓴 크리스마스 카드를 집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쓰는 카드의 경우, 3, 4, 5 줄이면, 특정 연도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잘되기를 바랐던 것과 같은 생각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마도 효율성과 공모의 관계를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고 싶을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동시에 이들을 쓰고 있다면 어휘와 구조 면에서 중복이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는 콜로새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특정 감옥 서신 시리즈에서 우리는 콜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의 네 서신을 살펴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고, 신학적 이유도 없고, 특별한 신념도 없고, 이 수업에서 제시된 순서는 날짜나 구조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방식으로 제시되고 시리즈를 따라가다 보면 실제로 잠시 멈추어 배우고 이 글 속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배열된 것뿐입니다.

그럼, 콜로새서를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언급했듯이, 콜로새서의 저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저자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죠.

바울의 저자는 언어, 사고, 스타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콜로새서에서 사용된 언어가 바울의 글에서 논란이 되지 않는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의 사고도 마찬가지로이며, 사실 스타일은 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벌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콜로새서의 첫 부분을 보면, 1장에서 8절이 그리스어 본문에서 한 문장으로, 때로는 더 길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폴이 그런 식으로 글을 썼나요? 폴이 그런 특별한 기분에 있었나요? 오, 저는 아프리카 원주민이에요. 유럽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제 악센트를 조금도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미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리죠. 제가 가는 곳마다 그들은 제게 상기시켜줍니다. 제가 가면 너무 빨리 말해요.

그리고 가끔은 그냥 bum , ...

같은 사람인가요? 이 강의를 계속하면서 기억해야 할 생각일 뿐입니다. 바울과 콜로새서의 저자는 논란이 있습니다 . 그리고 학자들은 바울의 동료가 이 편지를 썼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종종 동료들에게 이 편지를 쓴 동료가 정확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대답은, 글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좋아요, 저는 기독교 학자들과 그다지 보수적이지 않거나 복음주의적이지 않은 기독교 학자들, 복음주의적 집단과 비복음주의적 집단 모두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지 않았고 그의 동료가 썼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아마도 지난 15년 동안 제가 찾아본 복음주의 학자들 대부분은 실제로 바울의 학문을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동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콜로새서 4장 18절을 재빨리 언급하며, 알다시피, 바울의 동료가 이걸 썼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동료가 쓰기를 마친 후, 바울은 18절을 썼는데, 그 내용은, 나 바울이 내 손으로 이 인사를 씁니다 . 내 사슬을 기억하세요.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편지를 마치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실제로 거기에 있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편지의 배후에는 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폴이 실제로 직접 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썼고, 결국에는 이 편지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사실상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는 이 편지의 주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조해서 “나, 폴”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나는 누군가와 함께 했고, 심지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것을 썼습니다.

저는 그저 이게 저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 글은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마을 경험 중 일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학계에서 신약을 연구하는 동료 학자들은 제 마을 경험을 놀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을 경험이 매우 유용합니다. 아마도 90%가 넘는 사람들이 영어로 한 페이지도 명확하게 읽고 쓸 수 없는 마을에서 자라면서, 누군가가 글을 쓸 수 있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편지를 그 사람을 위한 편지로 보내는 일반적인 패턴이 있었습니다. 관습적으로, 제가 삼촌이나 엄마 또는 일부 친척을 위해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들은 제가 쓴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게 해서 그들이 쓰라고 한 내용을 전달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것입니다. 저는 영어로 편지를 쓰겠지만, 그들은 제가 그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두세 번 반복하라고 고집합니다. 폴이 여기서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걸까요? 알겠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쩌면 통제할 수 없는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피곤해서인지, 뭐 그런 이유로든, 여러분은 어떤 이유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제 동료 중 한 명, 예를 들어 티모시 라이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래에 서명하게 하세요.

이것이 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편지를 바울의 편지로 여기면서도 바울이 썼다는 것을 여전히 부인합니까? 그것은 붙잡아야 할 생각입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제가 바울이 콜로새서를 썼다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된 이유인데, 콜로새서와 빌레몬서가 너무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두 글자를 보면, 너무 가깝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첫 번째 글자를 쓰고 두 번째 글자를 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 글자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세요.

문법도 보세요.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세요. 어떻게 하나는 진짜 바울이 쓴 것이고 하나는 바울이 쓰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한 후, 제임스 댄이라는 영국 학자를 지적해야겠습니다. 댄은 바울 학문에서 저명한 학자입니다. 댄은 바울이 콜로새서를 썼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콜로새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고, 콜로새서에 대한 댄의 주석을 읽으면 매우, 매우 흥미로워집니다. 하지만 댄은 바울의 저자에 대한 논쟁에 대해 제가 언급한 마지막 요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두 편지는 정확히 같은 저자인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을 밝히고, 인사하는 사람들의 목록도 거의 같습니다. 에바브라, 아리스다고, 마가, 데마, 누가입니다.

인용문에서 보시다시피, 댄은 그러한 중복은 고의적인 위법 행위 나 역사적 기원의 근접성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콜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비교할 때, 같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 두 편지 사이에 어딘가에 비밀스러운 문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만한 모든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폴은 생애 마지막에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겁니다.

폴은 감옥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냈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국 가나에서 불과 10일 전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말하길, 처음 이틀 동안 돌아왔을 때 내 영어는 내가 말하던 영어와도 달랐다고 합니다. 나는 아프리카 영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표현은 실제로 내 모국어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냥 그 언어에서 영어로 직접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며칠 동안 제가 미국에서 그녀에게 말하는 남편처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영어를 말하고 미국 영어를 말합니다.

바울의 주변 환경이 그가 사용한 어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텍스트 비판적 분석에 근거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사본 증거는 학자들이 무언가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내기 위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텍스트 자체를 연구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어렵습니다.

내 동료 중 일부가 이 입장을 수용했던 것처럼 실제로 확신을 가지고 폴이 실제로 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폴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편지들과 다릅니까? 네.

문체적 차이가 있나요? 네. 신학적 차이가 있나요? 네. 다른 언어적 특징이 있나요? 네.

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저자를 주장하는 학자들과 바울의 저자를 반박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나 일반 유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가정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즉, 그것은 신약 시대에 누가 저자였는지에 대한 가정입니다. 다시 말해, 문서를 집어들었을 때 누가 무엇을 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대화를 형성하는 누가 저자였는지 설명하는 데는 몇 가지 수준이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저자가 자신의 손으로 쓴 사람일 수 있습니다. 확립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자 또는 저자로 알려질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쓰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글을 쓰라고 말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저자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동 저술, 누군가와 함께 쓰는 것입니다. 사실, 콜로새서의 경우, 18절에서 보듯이,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하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데 매우 확신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첫 번째 부분을 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는 편지의 마지막 줄이나 마지막 두 줄을 덧붙였을 것입니다. 저자는 또한 주인공의 친구나 제자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amanuensis*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우리가 *pseudonyme* 작가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신 지역의 유명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유명인물은 우연히 당신 눈에 유명해졌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훌륭한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글을 쓴 사람은 당신이 그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이유로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팬인

누군가가, 당신처럼,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뭔가를 쓰고, 그 글을 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그 사람의 아이디어 중 일부를 판매하고 전달할 것입니다. 여기서 콜로새서에 대한 저자에 대한 논의가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저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폴란이 그것을 쓰지 않았고 따라서 그 편지가 허구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재빨리 그 끝까지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꽤 많은 이유로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모든 형태의 저술의 효과에 대한 증거가 있지만, 비밀스러운 시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집단. 사람들의 집단이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합니다.

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집단. 스스로에게, 이 허구의 편지를 찾았으니, 비밀 시험이라고 부르자. 그것이 우리 교리와 실천의 기초가 될 거라고 말하면서.

저자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순진한 사람들이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위조입니다. 그것이 위조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2,000년 후의 우리보다 시험이 쓰여진 시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위층에서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실제로 이 모든 것을 내놓는 것처럼 들리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계에서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을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경멸하는 주장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콜로새서의 저자에 관한 한, 여기서 핵심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편지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가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적어도 일부 학자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중 하나, 또는 제가 지적해야 할 것은, 고대 세계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의 이름으로 그 사람인 척 글을 썼을 때, 원래의 사람과 다른 사람인 척하는 사람 사이의 시간 간격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100년 이상입니다. 학자들이 가명성이나 허위 저자에 관해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단 20년 정도 만에 누군가가 바울인 척했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연구를 제외하면, 우리는 실제로 고대 문학 분석에 대한 그런 주장을 해서 가명성 측면에서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하고, 동시대 사람들도 죽어야 하고, 불러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의 기억이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의 전통이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그 주변 세대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것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 날짜가 맞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저는 그것을 제출합니다. 제 입장과 모순되는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꽤 큰 도약입니다.

저자에 대한 문제에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우리가 초기 교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권과 같은 시험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동의어적 저자를 알고 있었으며 거짓 이름을 가진 기독교 저술로 그들에게 온 모든 저술을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그 시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 싶은 또 다른 것은 에우세비우스의 초기 교회 역사를 기록한 컬렉션에 있는 내용입니다. 에우세비우스는 초기 교회가 가명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바울이나 베드로의 이름이 적힌 편지와 같이 자신들이 쓰지 않은 편지는 무엇이든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경계하고 바울이 아닌 편지는

바울이라고 받아들이는 데 굴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적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세비우스의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 6:12. 1:6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다른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받아들이지만,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거짓으로 새겨진 글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상에게서 그런 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바울이 아닌 것을 거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것을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성경을 펴면 NIV 번역본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 그 날이 반역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드러나기 전에는 오지 않게 하라. 곧 멸망에 처할 사람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초기 교회에 어느 정도의 경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 사실이다.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특정한 믿음을 고수하고 불안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탈레반의 또 다른 형태로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지나치고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가정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속기 쉬웠고, 여기저기 던져지고, 그저 오는 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콜로새서를 바울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울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편지들에는 지적되지 않은 많은 신학적 유사점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바울 편지에서도 그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고,

제가 당신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지, 또는 당신이 바울이 콜로새서를 썼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충분한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바울이 콜로새서를 썼다는 것에 동의하거나 제가 바울이 콜로새서를 썼다고 가정한다고 가정하고 싶습니다. 그 틀에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주제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제 토론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바라고 바라고 바라고 바라고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질문을 한다면 증거가 스스로를 대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콜로시에게 쓰여졌습니다.

콜로시는 오늘날 우리가 테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고대 세계의 일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서문이나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자료에서 접할 수 있는 소아시아의 또 다른 이름은 아나톨리아입니다. 콜로시는 에베소에서 120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만큼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른 두 도시와 가까이 있어서 일부 고대 문헌에서는 실제로 삼도시 지역이라고 불렸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도시의 특징 중 일부는 제 동료인 래리 크라이저가 설명했는데, 그는 아주 좋은 글을 썼습니다. 여기 면책 조항에서 말해야겠지만, 크라이저의 책에 대한 제 리뷰를 읽으면 그가 자신의 증거 중 일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비판합니다.

하지만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인 크라이저가 동전, 전통, 고고학적 증거, 우리가 주화학이라고 부르는 것, 기념물, 기념물에 쓰여진 비문이 콜로시라는 도시에 대해 말해주는 많은 증거를 제공한 데 대해 매우 좋은 평가를 내려야겠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예민했지만 동시에 매우 종교적인 곳이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약간의 상업 활동이 있었지만 에베소에서 있었던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교도 종교가 지배적인 이 지역에 대해 쓴 것을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무렵 현대 터키의 그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이 정착했습니다. 콜로세움은 실제로 많은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고속도로에 가까웠습니다.

즉, 콜로시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지도를 잠깐 살펴보면, 삼도(三都)가 보일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콜로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도시 중 하나는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또 다른 도시는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사실, 일부 학자들은 때때로 콜로새서나 심지어 때때로 여기에 있는 에베소서가 히에라폴리스에 쓰여졌는지 아니면 이 편지들이 이 지역 주변으로 유통되도록 의도된 것인지 논쟁합니다.

소아시아의 유대인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소아시아에 유대인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을 마무리하기 위해 그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사실, 당시 소아시아에 상당수의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유대인 정착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정착민을 이곳으로 데려오려는 의도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필로는 소아시아에 많은 유대인 인구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안티오쿠스 3세가 요세푸스의 고대사 12에서 실제로 약 2,000명의 유대인 가족을 데려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실제로 안티오쿠스가 많은 유대인을 데려와 이 지역에 배치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콜로새서의 본문이 유대인 활동에 대한 힌트를 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놀라거나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정착민 사이의 근접성이 무엇인지 묻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역사를 기억한다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 세상은

사람들이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부 학자들이 추정하듯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우리가 성지라고 부르는 곳보다 더 많은 유대인이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현대 터키 지역에 상당수의 유대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까지 간 유대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세기의 텍스트를 콜로세움에서 읽는 것은 그리 터무니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보여줍니다. 콜로세움의 교회는 우리가 강의의 첫 시간을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바울이 글을 쓸 당시에는 바울이 그 도시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에서 알려졌습니다.

내가 주장하듯이 이 서신이 바울이 쓴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서신을 서기 50년 이후의 서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을 주로 에바브라의 손에 맡길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서신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거나 불필요해 보이는 이 모든 자료들. 첫째, 우리가 신약성경을 펴서 바울을 보면 바울에게 기인한 서신이 13통 있습니다. 그 서신들 중 4통은 감옥서신으로 확인됩니다.

그 네 권 중 두 권,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바울의 저자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바울 서신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학자들은 여전히 바울이 이 서신을 썼는지 아닌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 저는 바울의 저작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스타일, 언어, 사고 또는 신학을

강조한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또한 저는 사실, 이 모든 스타일적 특징과 고대 세계의 가명 저작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 시대만큼 가까운 시대에 이 서신을 쓴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관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수 있다는 주장을 시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독하고 4장 18절에 결론적인 발언을 쓰도록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대부분 그가 그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그가 실제로 이 편지의 저자라고 강력히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남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직접 찾지도 방문하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접촉했던 사람, 아마도 바울의 개종자,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운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돌아오면 이 편지의 목적을 살펴보고 이 편지의 첫 장과 본문이 바울이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 가르쳐 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신이 콜로새서라는 서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게 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계속 배우세요. 어려운 질문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남성과 여성이 되기 위해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옥 서신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Dan Darko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콜로새서 서론입니다.